

구미, AI 접목 초등돌봄 강화… 2030년까지 센터 30곳 확충

경북 최다 돌봄센터 22곳 운영
24시 돌봄으로 야간·긴급 공백 해소
방학 틈새돌봄 최대 66일 확대
AI 로봇 활용 놀이·학습·안전 지원
빅데이터 분석해 신규 입지 발굴

경북 구미시가 경북 도내 최다인 22개 다함께돌봄센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고, 2030년까지 시설을 30개소로 확대한다.

구미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8만 6천여 명이 이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야간·긴급 돌봄과 방학 중 틈새돌봄, AI 놀이·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산동쌍용 마을돌봄터, 9월 산동중흥 마을돌봄터를 개소해 도내 최다인 22개소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23년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구미24시 마을돌봄터’를 개소했다. 이 같은 운영 경험은 경북도의 저출생 대응 정책인 ‘K보듬 6000’ 추진에도 기반이 됐다.

시는 방학 기간 돌봄 공백을 줄이기



구미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어린이들이 AI 돌봄로봇과 함께 놀이활동을 하고 있다.

위해 지난 여름방학부터 학교별 방학 일정에 맞춰 최대 30일간 이용하는 ‘틈새돌봄’을 시행했다. 기존 센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며, 올해 시범 운영에 대한 호응을 바탕으로 2027년에는 지원 기간을 최대 66일까지 늘릴 계획이다.

AI 기반 돌봄도 확대하고 있다. 시는 돌봄 공간에 첨단기술과 놀이·학습 콘텐츠를 접목해 아동들이 돌봄 시간

에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미24시·새마을24시 마을돌봄터에는 책을 읽어주는 AI 클로바, 사이버도서관, 코딩로봇, 미래형 실내암벽 등 놀이·학습 시설을 마련했다.

특히 구미24시 마을돌봄터는 경북도 ‘AI 돌봄 지원 로봇 보급 시범사업’에 선정돼 1억 원 상당의 로봇을 지원받았다. 코딩로봇은 블록코딩과 놀이형 미션을 지원하고, AI 돌봄봇은 정서교감 대화와 위험행동 알림, 센서 기

반화재 감지 기능을 제공한다. 독서로봇 ‘루카’는 책 페이지를 인식해 내용을 읽어주고 반복 재생도 지원한다. 시는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해 돌봄시설 내 학습과 체험 기회를 늘리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구미시는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으로 지역별 수요와 입지 여건을 분석해 2030년까지 돌봄센터를 30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 도출된 최적 입지 10개 구역과 공동주택 내 시설, 유휴공간 등을 검토한다. 2027년까지 확보한 3억 8,500만 원에 추가 설치비를 확보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시설뿐 아니라 의무 외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살피고,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에 시설을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취업과 출산, 돌봄,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인구 증가의 핵심”이라며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아이 키우기 좋은 구미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미(경북)=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인천시

반려동물복지센터 문 열어

인천시는 26일 연수구 청학동에서 시가 직접 운영하는 ‘인천광역시 반려동물복지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옛 문학터널 관리동을 정비해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했으며, 총사업비는 39억 300만 원이다. 센터에서는 보호동물의 검진과 치료를 지원하고, 사회화와 행동 교정을 통해 동물이 새로운 환경과 가족에 적응하도록 돕고 입양 상담과 입양 후 관리,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등 시민 대상 교육도 운영한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센터의 첫 입양동물이 새 가족을 만나는 ‘1호 입양식’과 ‘반려견 비문등록 시범사업’ 등이 함께 열렸다. /인천광역시=이숙영 기자 sy1321@

포항시

전기차 배터리 자동평가소 개소

포항시가 26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전기차 배터리 자동평가센터를 개관하고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 기반 구축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경북도와 공동 추진한 센터는 배터리 모듈과 팩의 성능·잔존수명을 진단하고 재사용·재활용 가능 여부를 등급별로 판정한다. 최대 150대의 배터리를 평가하고 연간 3만 대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기존 하루 1~2대 수준이던 평가역량을 확대하고 자동화된 표준 공정으로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순창군

지방세 안내 리플렛 제작·배포

순창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정보 리플렛 1,000부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플렛은 지방세 관련 제도와 감면 혜택, 신고·납부 방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군민의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영업·생애최초 주택 구입·출산 및 양육 관련 취득세 감면 혜택,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절차,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제도, 지방세 납부 방법과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 방법과 세액공제 혜택 등이다. /순창(전북)=정봉철 기자 jdc6746@

경남, 전남광주와 남해안 공동 발전 맞손

남해안·우주항공 특별법 제정 협력 해양환경 보전·섬 발전 공동 추진

경남도는 박완수 도지사가 26일 오후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만나 남해안 상생 발전 및 공동 번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광역행정통합을 이뤄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남도가 한려수도를 공유하는 생활·경제권으로서 남해안 공동 발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공동 현안에 함께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여수시장과 하동군수, 통영시·사천시 부시장, 남해군 부군수 등 양 시도 주요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서에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해양환경



박완수 경남지사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26일 여수세계섬박람회에서 남해안 상생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보전과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양 지역이 함께 추진할 협력 과제가 담겼다.

양 시도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고,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고양, 일산대교 출퇴근 무료화 추진 탄력

고양시의회 동의안 최종 가결

고양시가 추진하는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무료화 사업이 시의회 동의를 확보하면서 후속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2027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경기도와 김포·파주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양시는 26일 열린 제3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대 완전 무료화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합의동의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동의안은 앞서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고양시는 우선 출퇴근 시간대 무료화를 시행한 뒤 장기적으로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는 2027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다만 이번 시의회 의결이 통행료 무료화 시행을 최종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 시행까지는 관련 조례 제정과 재원 확보, 관계기관 간 세부 협의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시는 향후 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경북, 파독간호사 고국 체류 지원 검토

파독간호사 91명 고국 방문

파독 60주년을 맞아 독일에서 청춘을 보낸 파독간호사 91명이 고국을 방문한 가운데 경북도가 이들의 고국 체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 25일 구미 호텔금오산 그랜드홀에서 ‘파독간호사 구미 방문 환영 만찬’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김장호 구미시장, 재독한인간호협회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1960년부터 1976년까지 독일로 파견된 간호요원은 약 1만 1,000명이다. 파독간호사와 광부들이 1965년부터

1975년까지 고국에 송금한 금액은 1억 153만 달러로, 1965~1967년에는 대한민국 총수출액의 1.6~1.9% 수준이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려운 시절 가족과 조국을 위해 독일에서 일한 간호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서 광부·간호사들과 만났던 당시를 회고했다.

박소향 재독한인간호협회장은 파독간호사들이 고국에 머물며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 달 살기’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파독간호사들의 고국 체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칠곡군, 中企 말레이시아 수출길 활짝

17.5만달러 계약·511만달러 MOU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 속에서 칠곡군의 행정지원과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해외 수출계약으로 이어졌다.

칠곡군과 경북경제진흥원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지역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한 시장개척단을 말레이시아에 파견해 17만5천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과 511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 10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장개척단에 참가한 유전용 기자재 생산기업 에스디넥스피어(주)는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 3곳과 17만5천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에스디넥스피어는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최소 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칠곡군 말레이시아 시장개척단에 참가한 에스디넥스피어의 배선봉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현지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김재욱 칠곡군수(가운데)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현지 바이어들에게 지역 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알리며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칠곡군은 바이어 발굴과 수출상담 등 실무 지원도 병행했다. /칠곡(경북)=김준한 기자 kh9@

부산테크노파크

패패부산서 에티오피아관 운영

부산테크노파크는 오는 29~31일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6 PFB 패패부산 전시회’에서 에티오피아 가족·신발 기업 6개사의 공동관을 운영한다. 참가 기업들은 72㎡ 규모 공동관에서 신발·가방과 가죽 소재를 전시하고 국내외 바이어를 만난다. 이번 공동관은 한국국제 협력단(KOICA)의 ‘에티오피아 가족 및 가죽제품 경쟁력 강화사업’의 하나로, 부산TP와 한동대가 에티오피아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지원한다. 참가 기업은 ▲나추릴슈즈 ▲케르에지 ▲달가 ▲콜바태너리 ▲레더엑조티카 ▲엘리코다. /부산=이정민 기자 metrobusan6@